

# U대회 성화 내일부터 전국 60곳 누빈다

### 무등산 장불재서 파리 소르본대 성화 합화

### 3일 제주로 이동 22일간 17개 시·도 봉송

오는 7월 개최되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를 밝힐 국내 성화 채화식이 2일 오전 10시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에서 열린다.

성화 채화식에는 윤장현 조직위원장, 조영표 광주시의장, 김윤석 조직위 사무총장이 아현관, 종현관을 맡는다.

채화식은 개시, 천제봉행, 칠선녀 성무, 성화 채화, 향로점화 및 성화봉 전달, 성화 합화, 성화봉 점화, 성화봉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예술고 재학생으로 구성된 칠선녀가 제단에 올라 성무를 춘 뒤, 채화경으로 태양의 빛을 모아 채화해 초현관에 성화봉을 전달한다.

이 성화는 지난 5월 18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채화돼 광주 U대회 조직위 사무실 안전랩프에 보관돼 있는 해외 성화와 합화된다.

조직위는 전국 봉송에 앞서 합화한 성화를 안전랩프에 담아 이날 광주 도심 곳곳을 돌며 대회 이념인 EPIC(Eco·Peace·IT·Culture)를 테마로 봉송한

다. 박태규 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차명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최은철 국립광주과학관장, 이숙자 명장이 각각 푸른길공원, 5·18기념공원, 국립광주과학관, 아시아문화전당을 돌며 성화를 봉송해 친환경, 평화, 기술, 문화 대회의 광주 U대회의 가치를 높게 된다.

성화는 조직위에 안치된 후 3일 오후 제주도로 이동해 4일부터 21박 22일간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 17개 시도 60곳을 거치는 본격적인 봉송이 시작된다. 국내 성화봉송에는 소녀시대의 수영, 피에스타의 재이 등 걸그룹과 함께 대학생·일반인 3150명이 주자로 나선다.

성화는 전국 3700km를 돌아 개최식이 열리는 오는 7월 3일 광주U대회 주경기

장에 도착하며 특별 주자가 성화대에 최종 점화한다.

U대회 조직위는 국내 성화봉송 기간 북한과의 판문점 성화봉송 계획이 극적으로 성사될 경우 일부 일정을 조정해 남북 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 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상서로운 서석대, 임석대를 배경으로 장불재에서 채화된 국내 성화와 프랑스 파리에서 채화된 성화가 합화돼 광주 U대회를 한하게 비추게 될 것”이라며 “이번 성화봉송은 빛 ‘광(光)’자 모양의 성화봉송로를 따라 전국을 누비며 광주U대회를 전 국민과 교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4급 식품연구센터장 된 전직 군수

〈전남도 산하기관〉

### 의사출신 정기호 전 영광군수 공채 응시해 최고점수

전직 군수가 서기관급 기관장으로 ‘변신’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며 단체장으로 인사권, 결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군수가 기관장 채용 공고에 응시해 내정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 31일 “정기호 전 영광군수가 최근 생활산업진흥원 식품산업 연구센터장 채용 공고에 응시해 심사위원들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내정돼 조만간 임명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식품산업연구센터장은 서기관(4급) 상당의 직책으로, 3년 계약에 연봉 7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다. 이번 채용 공고에는 교수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6명이 이력서를 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정 전 군수가 5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의사 출신으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정 전 군수의 ‘변신’에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선 기초단체장이 전남도 출연기관인 생활산업진흥원의 산하기관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6년간 영광군수를 지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생활산업진흥원에서 지난 4월 자체적으로 채용공고를 내 정 전 군수가 선정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남편(임호경 전 화순군수)을 대신해 출마한 보결선거에서 당선돼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화순군수를 역임한 이영남 전 군수도 지난해 9월 6급인 화순군 종합문화센터장 공모에 참여해 임명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중 공공간물 실내 전면 금연

중국이 6월 1일부터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새둥지 모양의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에 대형 금연 표지물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 맞춤형 복지급여 오늘부터 신청

### 광주시·전남도 12일까지 접수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앞서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1일부터 12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점수를 받는다.

이는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자산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이 기간 중에 맞춤형 급여 지원 신청을 하면 7월부터 바로 보장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치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가구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나 신청 민원이 많은 경우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맞춤형급여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교육급여는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만으로도 선정한다.

부양 의무자의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수급자 1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17만 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봤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수급자 1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 4인가구 소득이 422만 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더 많이 지원받게 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위안부 김복동 할머니 ‘자유 위해 싸우는 100인 영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9) 할머니가 국제 언론단체가 선정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에 세계 위안부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3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따르면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랑스 AFP통신이 지난달 초 함께 펴낸 화보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 100명’에 김 할머니가 실렸다.

1985년 설립된 국경없는기자회는 파

리에 분부를 두고 전 세계의 언론 자유 증진과 언론인 보호 활동을 벌이는 단체다.

김 할머니는 2011년 12월 14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천번째로 열린 수요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사진과 함께 소개됐다. 김 할머니는 매주 수요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 왔다.

사진에 딸린 설명문에는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에 끌려가 성 노예로

살았던 아시아 여성 20만명 중 대부분은 한국인이었다.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1992년 이래 줄기차게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화보는 세계 각국에서 자유, 인권, 보건, 인간 존엄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이들의 모습을 담았다. 김 할머니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비롯해 세계적인 인권운동가, 정치인, 종교 지도



루서 킹 목사,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이끈 아웅산 수처,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등이 화보에 수록된 대표적 인물이다. /\*연합뉴스

# 日 해안 8.5 강진... 전남서도 흔들림 감지

지난 30일 저녁 일본 도쿄 남쪽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전남 해안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4분께 일본 도쿄(東京都) 남부의 북태평양에 있는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 인근에서 규모 8.5(추정치)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지는 도쿄에서 874km 떨어진 오가사와라제도 서쪽 바다의 북위 27.9도, 동경 140.8도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약 590km로 추정된다. 오가사와라제도의 하

지마(母島)에서 진도 5를 약간 넘는 수준의 흔들림이 관측됐으며 도쿄에서는 진도 4를 기록해 도심의 주요 건물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지는 수준이었다.

지진이 발생하고 곧바로 전남 여수, 광양, 목포, 강진, 무안 등 서·남해안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광주에서도 일부 진동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진료내용**

**라식 LASIK**    **라섹 LASEK**    **ICL 안내렌즈삽입술**    **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운암동 광안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